

옥정호 종합관광개발사업 고삐

심 민 군수, 옥정호 관광개발사업 현장 방문 세부사업 집중 점검

임실군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 종합관광개발사업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가 임실군만이 아닌 전라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써 가치가 있다고 보고, 옥정호 종합관광개발 사업을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 군수는 27일 옥정호 관광지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점검을 가졌다.

현장방문에서 심 군수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옥정호 물문화 돌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을 세세히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도 동부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280억원을 투입하여 옥정호의 생

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은 봉어섬을 산림욕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봉어섬 예코가든, 순환도로 및 자라섬의 경관개선을 위한 관광경관도로 '休', 기존 포장마차촌 활성화를 위한 에코누리캐퍼스, 옥정호 물길·산길 등을 활용한 에코투어링루트 조성 등이다.

심 군수는 이날 사업 완료 후 봉어섬과 자라섬의 진입 방안 및 생태탐방선 운영 방안 등 쟁점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활성화 방안 강구를 강력히 지시했다.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정호 물문화 돌레길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0억원으로 전망데크, 하늘데크, 숲속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망데크와 하늘데크 구간은 옥정

호의 풍광과 비경을 감상하고 송림 숲길은 힐링과 놀이공간으로 옥정호를 명품탐방길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현장 행정을 통해 옥정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군정 주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심 군수는 "사업 완료 이후에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연계상품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기점으로 시작된 두 사업이 옥정호 관광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옥정호는 전라북도의 보물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특례군 지정 및 재정분권 대응해야”

황숙주 군수, 민선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서 주장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황숙주 회장(순창군수)은 최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민선7기 2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열태영 수원시장)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자치분권 관련 법안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전북의 목소리를 전했다.

소멸위험군(郡) 방지를 위한 '특례군' 지정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난 10월 전국 24개 군이 참여하여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 군수는 특례군 지정 추진상황을 전국협의회에 전하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각종 정책 추진시 전국 지자체 10%에 해당하는 24개 소멸위험군(郡)의 입장을 고려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의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 도입이 될 경우 현재의 지방교부세

와 비교해 지역간 재정격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전라북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전달하며 효과적인 2단계 재정분권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지역협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 8건의 전국협의회 활동 보고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입법 대응관련 보고' 등 8건의 현안사업, '자치분권 관련 법률 국회통과 촉구문 채택' 등 4건의 안전심사가 이뤄졌다. 이어 공동회장단 일당은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촉구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오늘부터 수렵장 운영

440명 포획 승인

남원시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인근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과 연계한 광역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수렵장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정도로,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수렵금지지역을 제외한 335㎢를 설정해 운영하며, 440명에게 포획을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수렵가능지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을 포획승인 받은 수량 범위에서 포획할 수 있다.

남원시는 남원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수렵인 편의를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총기안전교육,

피해방지단 사전교육 등을 추진하고, 수렵제한지역 주변에 수렵금지안내판 부착 및 수렵인 수렵안내도를 배부하는 등 안전한 수렵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남원시 왕길성 환경과장은 "수렵기간동안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 착용을 당부하며, "이번 수렵장운영을 통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가족전염병 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문화원 개원55주년 제3회 임실문화원의 날 기념행사가 2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원55주년 제3회 임실문화원의 날 개최

양원기 전 임실문화원 감사 등 유공자 5명 공로패 수여

임실문화원 개원55주년 제3회 임실문화원의 날 기념행사가 2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후로 3회째를 맞이한 '임실문화원의 날'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실문화원의 성과를 알리고, 문화원 간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문화원은 그동안 문화유적 탐방, 읍·면 풍물경연대회, 향토사료 조사, 문화학교, 역사자료 번역사업 등 우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기념식에서는 임실문화원 발전에 힘쓴 양원기 전 임실문화원 감사 등 유공자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성미 임실문화원장은 "올해 진행되었던 사업 성과보고, 결과물들의 전시 및 공연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한해가 되짚어보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심민 군수는 "임실문화원이 고유한 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행정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9일 야간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임에 따라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는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다섯 마당으로 조성된 남원관광지내에 있는 테마공원으로서 지난 2004년 5월에 조성, 동절기(11월~3월)는 오전 9시~밤 9시(18:00~21:00:무료), 하절기(4월~10월)는 오전9시~밤10시(18:00~22:00:무료)까지 개장·운영되고 있다.

이번 야간조명경관조성으로 공원입구 화단 및 진입부, 향토박물관 주변에는 LED은하수조명과 춘향테마파크의 상징인 춘향과 몽룡, 하트터널 등 다양한 포토존을 배치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일부미네이션 불빛으로 조성

됐다. 또한 은하수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와 '춘향과 이도령의 일편단심(一片丹心) 사랑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돼 '사랑의 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키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 겨울 하얀 눈과 조화를 이룰 야간의 춘향테마파크는 화려한 은하수 불빛과 잘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춘향테마파크 일원의 야경경관이 개선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보안 및 정비 등을 통한 춘향테마파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행안부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남원시 '최우수' 기관 선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지난 11월 15일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바탕으로 재정집행 실적(50%) 및 소비·투자 집행 실적(50%) 등 2개 지표로, 남원시는 소비 및 투자 집행실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남원시는 올 초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신속집행 로드맵 작성 및 매월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집행부 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이환주 시장(사진)은 "남은 1달간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에 내실을 기하는 등 연말까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30개 마을 영상으로 기록

순창군이 농촌마을의 평범한 이야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억, 순창 농촌마을의 일상을 주민의 눈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기로 했다. 이는 군이 농촌마을의 과소화, 소멸,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마을의 소중한 삶의 기록이 소멸되어가고 현 세대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마을 영상으로 기록, 보존하고자 나선 것.

현재 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마을동영상 제작과 함께 농촌마을 역사자료 구축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에 대한 공고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순창군 11개 읍면에서 농촌마을 역사자료 구축(20개 마을) 및 마을영상제작(10개 마을)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순창군 마을의 역사와 주민 생활상 등 생생한 기록 및 자료 수집으로 후손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동영상 및 마을홍보영상 제작발표회(페스티벌)도 다음달 14일(토)에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사진·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여 도시로 나간 가족이나 마을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시·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